



# 금속인쇄분야 불모지에서 시작 창업 30여년만에 세계 정상 눈앞

충남 아산시 둔포면에 위치한 (주)대성엠피씨는 금속인쇄분야에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의 기업이다. 최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대성엠피씨는 시설투자는 물론 인적투자에도 아낌이 없다. 창업 당시부터 '인화단결'을 제철로 손꼽고 있는 대성엠피씨. 특이하게도 캔은 만들지도 않으면서 금속인쇄분야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대성엠피씨에는 뭔가 숨겨진 저력이 있는 것 같다.

## 차가운 금속을 인쇄로 따뜻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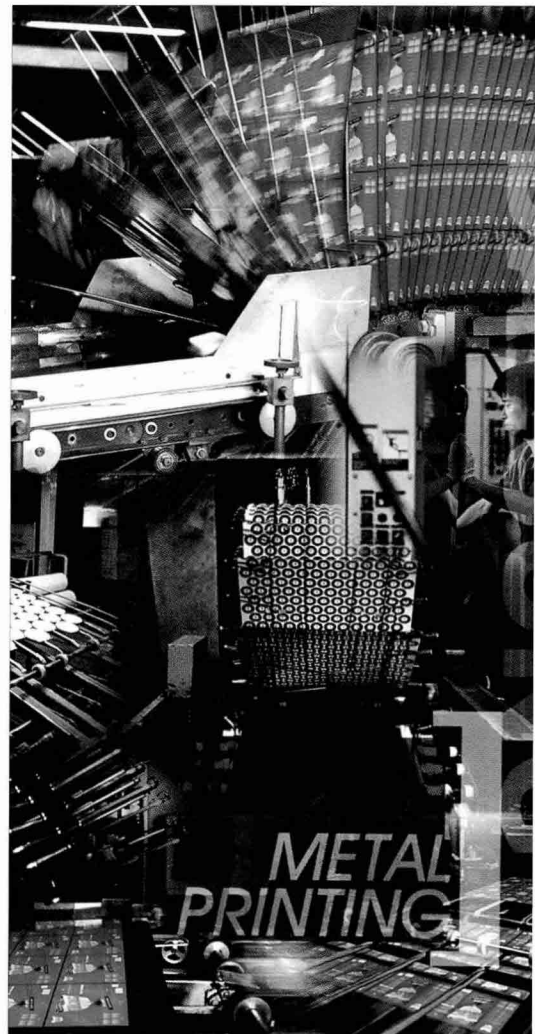
금속은 차가운 느낌을 주는 물질이다. 그러나 인쇄를 통해 화려하게 변신하고 나면 너무도 정겹고 따뜻한 물체로 바뀐다.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인쇄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성엠피씨는 단연 이 분야에서 으뜸.

1967년 대성금속인쇄공업사로 서울 대방동에서 직원 5명으로 출발, 현재는 매출액 250억원에 직원 140여명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전체적으로 봐서

는 중견기업이지만 금속인쇄전문회사로 본다면 국내 1위, 세계 5위의 대규모 회사라고도 할 수 있다.

불모지나 다름없던 금속인쇄분야에 뛰어든 대성은 창업하고 3년 간은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노후된 기계와 수동작업에 따른 어려움, 여기에 기술적인 어려움까지 겹쳐 일을 하기 보다는 배우는데 시간을 더 할애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힘든 시기를 거쳐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한 대성은 공장을 서울 성수동으로 이전하면서 새로운 인쇄기를 도입,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았다. 이후 꾸준한 성장을 거쳐 1978년 공장을 성남의 공단지역으로 이전, 인쇄기, 도장기, 왁스기 등을 모두 설치하여 명실공히 금속인쇄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게 된다.

현재의 아산공장은 1989년 제1공장 준공, 1992년 제2공장 준공, 1993년 제3공장 준공, 1995년 제4공장을 준공하여 총 공장부지 1만5천여 평에 건평 8천여평에 이르는 공장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듬해인 1996년에는 국내 최





초로 4색 인쇄기를 도입함으로써 품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된다.

이후에도 생산성과 품질향상을 위해 2003년 6색 인쇄기를 도입하는 한편, 오프셋 인쇄분야에서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CTP를 2003년과 2004년 각각 1대씩 도입, 금속인쇄분야 선두자리를 넘볼 수 없는 철용성을 쌓아가고 있다.

#### 금속인쇄도 CTP 활용해 최고 품질 유지

대성엠피씨는 약 36년간 사업을 해 오고 있지만 영업사원이 없다. 그것은 거꾸로 말해서 영업이 필요 없다는 얘기도 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품질이 뛰어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품질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것은 설비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 1996년 국내 최초로 4색 인쇄기를 도입해 품질향상에 힘써 온 대성은 이후에도 4색 인쇄기를 추가 도입했으며, 2003년에는 6색 인쇄기를 설치해 금속인쇄분야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여기에다 최근 오프셋인쇄분야에서 도입이 증가하고 있는 CTP도 금속인쇄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도입, 품질의 안정화 및 향상에 힘써 왔다.

대성엠피씨에서 도입한 크레오의 CTP 트렌드세터 VLF(Very Large Format- 대형사이즈)는 서멀(열 전사) 방식의 판 출력기로 판 크기는 최소 508×394mm에서 최대 1256×1702mm까지 출력이 가능하다. 프리프레스 시스템을 포함한 전 공정을 자동화 한 대성엠피씨는 CTP 1호기 도입에 이어 장비와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생산성 증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에도 2호기를 도입했다.

대성에서 도입한 크레오의 대형사이즈 판 출력기 트렌드세터 VLF는 프리너지 파워팩, 스타카토 FM스크리닝 이미징 옵션을 포함하고 있다. 크레오의 대표적인 워크플로우 시스템으로 알려진 프리너지 파워팩은 효율적인 네트워크와 파워팩 한 성능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대성엠피씨의 제판시설은 별도의 건물에서 철저히 관리되고 있으며, 금속인쇄 특성상 버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버닝장비까지 갖추고 있다.

작업성과 품질이 안정화되고 사원들의 열의가 결합된 제품은 당연히 고객 만족으로 이어져 영업사원이 없어도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

#### 열린 경영으로 의사소통 원활히

대성엠피씨는 창업 이래 설비투자와 인적자원 보유를 바탕으로 품질향상을 꾀하고 있다. 특히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기 위해 인사관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인사관리는 기업의 생산적 목적 달성, 조직 내 이해관계의 조정, 인간적 측면의 충실 등 3가지를 중점으로 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한편, 사기 또는 근로의욕을 높여 직원들 스스로가 창의력을 발휘하는 자발적 협동체제가 형성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성에서는 주 5일 근무제

## “공명정대한 경영” 최선



충남 청양에서 출생한 이형집 사장은 '신용을 바탕으로 한 공명정대한 경영'을 경영철학으로 삼고 있으며, 회사의 이익을 직원 및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회사의 운영도 2세가 아닌 직원들에게 돌려줄 계획이며, 10여년 전부터는 이익의 30%를 직원들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사내 장학사업과 각종 복리후생을 위한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원혜택 뿐만

아니라 사회환원을 위해 봉사과 지역사회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사장은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애향 장학금 1천만원을 기증 연간 2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 배우는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조달해 줌으로써 희망과 용기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도민체전 시 체육인의 발전에 1천만원을 기탁하고 있으며, 명절 및 연말연시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매년 3~4백만원씩 기탁하고 있다. 이밖에도 충청남도에 있는 115개 노인정을 대상으로 물품기증과 경노위안잔치, 효도관광을 행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 1억여원 이상의 금액을 기탁하고 있다.

이형집 사장은 정보관리 및 경영정보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인식해 1980년대 중반 국내에 컴퓨터 및 전산화 작업이 활성화되기 전에 이미 중소기업으로서서는 획기적으로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산 및 관리 경영전반에 활용함으로써 조직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또한 외부 정보수집에 주력하여 해외 전시회 및 박람회 등에 계속적으로 인력을 파견하여 신기술 및 새로운 생산설비를 조기 발견하여 도입함으로써 이 업계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형집 사장은 대외적인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안산이씨 대중화수회 회장, 전국대학교 대학원 동문회 회장단회 회장, 아산시 기업인 협의회 회장, 화암초등학교 총 동창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재경 청양군민회 회장, 충남 기업인 연합회 회장, 국제 라인온스 354-C지구 부총재 등의 중책을 맡고 있다.

와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이익금의 30%를 전 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학자금 및 많은 경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급여수준을 크게 높여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가 무려 50% 이상에 이를 정도다.

주 5일 근무는 지난해인 2003년부터 회사측과 직원들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다. 업계 특성상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해야 되는 금속인쇄분야는 2교대 내지 3교대로 24시간 운영을 해야 한다. 현재 대성은 3교대가 아닌 2교대를 하고 있다. 이것은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회사측도 반색하는 입장이며, 이런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 주 5일제를 선택하게 돼 전 직원이 이에 만족하고 있다.

회사측과 사원간의 이러한 상호협력은 '열린 경영'이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말단 사원에서부터 경영진까지 매주 월요일 전 사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주재하여 자기의 주장과 의견을 격 없이 발표하고 좋은 안건이나 지적사항들은 즉시 실천하고 개선하여 적극적으로 사원들이 회사 경영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는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노조가 필요 없는 직원들의 회사  
대성엔피씨는 노조가 없다. 이는 지역적인 문제도 아니고, 직원들의 의식





금속인쇄를 위한 6색 인쇄기



대성MPC에는 대형CTP가 2대 운용되고 있다

이 없어서도 아니다. 단지 사원들이 요구하는 것을 회사측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는 것과 직원들 스스로가 회사에 기여하려는 의식이 강해서다.

누구나 어려웠다는 IMF 체제하에서 보너스를 반납한 직원들은 감원 없이 열심히 일한 탓에 1년만에 상여금이 원상복귀되는 쾌거를 이룸과 동시에 이익금의 30%나 되는 성과급을 받음으로써 노조 결성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아직도 이 지역 노조에서는 대성엠피씨의 노조가입을 제1 과제로 정해 놓을 정도라 한다. 대성에 노조가 없는 이유 중 또 다른 하나는 복지혜택에도 있다.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까지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녀들의 학비 걱정을 덜어주는 한편, 가족을 동반한 직원 단체 해외여행도 시행하고 있어 가정의 화목을 돈독히 함은 물론 직원

들의 유대강화 및 선진국 산업시찰로 생산성 제고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여기에 제안제도를 시행하여 좋은 안전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작업 시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거나 작업공정 단축 등 원가절감 등에 기여하면 이 또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직원들의 수입과 맞물려 작업 환경 개선도 장기근속자들을 많이 낳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인쇄사라는 느낌을 주지 않을 정도로 잘 정돈된 실내 분위기, 잉크와 각종 첨가제로 인한 악취 발생이 거의 없다. 그리고 냉·난방 설비 완비 및 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노동강도까지 개선해 근무 여건을 한결 편하게 만들었다.

수출로 외국 업체와의 경쟁 나서 금속인쇄분야 국내 1위는 이제 대성

에게 더이상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대성엠피씨의 경쟁상대는 외국에 있기 때문이다. 규모면이나 매출액면을 볼 때 세계 5위로 인정을 받고 있다. 이에 대성은 외국에서의 경쟁은 이제부터라고 생각하고 수출에 대한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대성은 지난 2000년부터 수출(로컬)을 하기 시작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2000년 29만달러, 2001년 109만달러, 2002년 425만달러, 지난해는 406만달러를 기록, 2003년에는 3백만달러 수출의탑을 수상하기에 이르렀다. 올해 목표는 550만달러로 상향했으며 현재의 수주상태를 본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달성할 것으로 보여 5백만달러 수출의탑 수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수출국은 미국이 95% 정도를 차지해 대미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그 외에 영국 등지에 수출을 하고 있다. 수출 품목은 참치관이 98%를 차지할 정도로 참치관에 대한 비중이 높으며, 참치관 외에 병마개를 2% 정도 수출하고 있다.

현재 달러화의 약세로 염려스러운 면도 있지만 그래도 국내에서 경쟁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제 대성은 한국 제일의 금속인쇄업체이기 보다는 세계 제일의 금속인쇄업체를 꿈꾸며 해외영업에도 주력하고 있다.

〈윤재호부장〉

